

동해해수청,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10월 16일(수) 14시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선원 및 선사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선박 안전설비 시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선박 안전설비 시연과 해양안전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응요령과 선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종사자가 직접 소화기, 조난신호탄, 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사용·체험 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선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소화훈련과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구명뗏목 투하 시연, 퇴선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철락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고규성 (033-520-6147)

참 고

관련 사진



2024년 상반기 교육 사진



2024년 상반기 교육 사진